민간공원 2단계 27일 최대 갈림길

민관거버넌스회의…중앙·일곡·중외공원 국비지원 등 재논의 광주시, 제안서 공모 추진…시민단체 "민선 7기로 연기해야"

중앙·일곡·중외 등 광주의 대표 공원에 대한 개발 방향이 오는 27일 민관거버넌스회의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시재정 투입 계획 공표, 공공성 강화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선 6기 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제안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은 정부에 국비 지원 요청, 공공개발 우선 적용 등을 위해 공모 시점을 민선 7기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3일 "지난 13일 민관거버넌스 회 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과 합의 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회의를 27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번 회의에서 강조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주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제한경쟁이나 우선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시와 협

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공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대상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했 다. 현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지침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 해 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다 법 무법인의 자문도 받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시와 도시공사의 판단이다. 질의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우선관리구역 지정 및 지방채 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관거버넌스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보존과 공공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국비지원, 제도적 보완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협의한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면적이 300만6000㎡인 중앙공원은 물론 중

대한 국토부의 회신은 아직 없는 상태다.

외공원(243만9131㎡), 일곡공원(106만 6166㎡) 등 100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 서는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

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은 시가 2023년까지 15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이 민선 7기와 겹쳐 민선 7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성 강화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면서도 "1단계 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2단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할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1단계 대상 송암·마륵·수랑·봉산 등 4개 공원은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중앙·일곡·중외공원 등 6곳은 공고 시기, 개발방향 등을 민관거버넌스 내에서 논의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평화당 핵심당원 연수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광주지역 핵심당 원 연수에서 참가자들이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시장・군수 대진표 윤곽

민주, 단수 후보 7곳 확정… 평화, 11곳 후보 결정

6·13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 서 전남지역 시장·군수 대진표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양시장 등 단수 후보 7곳을 확정한 데 이어 22~23일 경선을 거쳐 24일 목포시장과 신안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13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평화당은 22개 선거구 중 절반인 11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바른미래당과정의당도 후보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수 공천 7곳과 보류 지역 2곳을 제외한 13곳의 경선을 22~23일 이틀간 진행했다. 결과는 24일 오후 4시께 발표할 예정이다. 결정이 보류됐던 목포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다. 김종식·김한 창·조요한·최기동 후보 등이 참여해 4파전으로 진행되는 경선은 5월10일 치러진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은 23일 장일 진도 군수 후보 등 총 31명의 5차 공천확정자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연관 영광군수 후보와 기초의원 4명에 대한 4차 공천을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평화당 전남지역 후보는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87명으로 총 127명의 후보가확정됐다. 평화당 전남도당은 오는 27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곡성군수 후보에 박 웅두 농민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광역의 원 1명, 기초의원 5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2명도 확정했다. 정의당은 아직 선출 하지 못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2차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5억우모자들 선물을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김명진 "민주당 드루킹 사건 특검 반대 안돼"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3개월간수사를 지지부진 추진해 온 경찰과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 없게 되

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과 금품거래 정황까지 드러났다 심지어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메 신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김경수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훈희 국회의원 재선거 서구갑 출마 선언



민주평화당 법률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가 최근 국회의원 재선거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 언했다.

홍 변호사는 23일 "호남 정치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호남이 역사의 주역이 돼 민주 주의를 꽃피우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

는 영광을 다시 구현하겠다"면서 "평화당은 거대 양당의 틈바 구니에서 호남을 지키고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당의 변화를 이끌고 민주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흐름에는 적극 동참하겠지 만, 실정에 대해서는 언제든 쓴소리를 하고 경종을 울리겠다" 고 말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후보

이정선 '청렴도 제고 TF' 구성 등 공약 발표

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3

이정선(59·전 광주교대 총장) 광주시교육 감 예비후보는 23일 '광주교육청 청렴도 제고 TF' 구성 등을 포함한 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자신이 앞서 설립계획을 밝힌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산하에

'광주교육청 청렴도 제고 TF' 구성 ▲시민감사관 및 시민참여 형 외부평가제 도입 ▲비리 교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외부인사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광주교육인사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예비후보는 "청렴 연수, 홍보자료 등 구시대적인 발상과 '50인 협의회'와 같은 비효율적 정책으로는 청렴도 꼴찌광주교육청의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석규 "현장체험 통해 전남형 교육모델 수립"



고석규(61·전 목포대총장)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선거 슬로건으로 '사람중심의 포용교육과 미래를 여는 창의·융합교육'을 내걸고 24일부터 눈높이 현장체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급식봉사와 교통질서 캠페

인, 야간 방범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전남형 교육모델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체험 첫 일정으로 고 예비후보는 부인 이윤미씨 등 2명의 지인과 함께 24일 여수 구봉초등학교 구내식당에서 급식봉사 체험을 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혜자 "6년전 전략공천 수혜설은 사실 아니다"

설명회 열어 해명… 당시 상대 경선후보 중도 포기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당원,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2 번의 전략공천 수혜설'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박 후보는 "상대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으로 민심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6년 전 참여했던 경선을 지금 와서 전략공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2년 제가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당시 3명의 후보가 중앙당 공관위 면접을했고, 그 결과 저를 포함한 2인의 국민경선이 결정 됐으나 경선 당일 갑작스럽게 장하진 후보가 경선을 포기함으로서 단수 공천을 받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두 번의 전략·공천을 받으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광주 시민 사회와 언론 에 대대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 는 정치적 상처를 안겼다"면서 "'전략·공천 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2016년 현역의원 탈당의 열풍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당을 지킨 사람, 그리고 송갑석 후보의 총선 패배로 쑥대밭이 돼버린 광주 서구 갑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서 단 한 번도 당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탈당한 적도 없는 박혜자의 충심을 의심하거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차분하면서도 단단하게 선거 운동을 진행해줄 것을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역·기초의원 비례후보 27일까지 접수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공천위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6·13 지방 선거 광주지역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바른미래당 광주광역시당 공식홈페이지의 배너나 온라인 공 천접수 프로그램(http://nomination.bareunmirae.net)을 통해서 접수·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 서 신청당시 당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비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바 른미래당 광주광역시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광주광역시당은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 회 의를 오는 4월 27일 열어 공천후보자 심사를 할 예정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